



'달빛동맹' 공항에서 철도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 휴게소에서 광주-대구공항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달빛내륙철도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양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광주-전남 상생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미일 이지스함 동해서 합동훈련

북 미사일 탐지·추적·정보공유

한국과 미국·일본이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통해 공해상에서 실시했다.

해군에 따르면 훈련에는 우리의 울곡이함함과 미국 벤폴드함, 일본 아타고함 등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이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작년 10월과 지난 2월 22일 우리 해군에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두 달도 안 돼 또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은 지난 4일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펼친 바 있다.

울곡이함장 김기영 대령은 훈련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해군의 탄도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실질적 훈련을 통해 작전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는데, 이번 훈련이 당시 합의에 따른 것은 아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방어·대잠전 훈련 정례화 시기 등은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훈련은 정례회의 일환이라기보다 북한의 위협·도발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자살예방센터 24시간 동행 취재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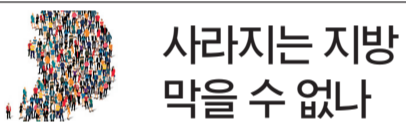
광주 출신 문동주 목사 피해 160km 던졌다 ▶18면



굿모닝 예향 - 미국사 전문 김봉중 교수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귀농 인구 절반만 정착해도 소멸 막는다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다

### <9> 귀농·귀촌 정책 바뀌야

#. 인생 2막을 꿈꾸며 완도로 귀농했던 퇴직 공무원 박모(62)씨는 귀농 6개월 만에 원래 거주지였던 인천으로 돌아갔다. 박씨가 역귀농한 이유는 집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빈집은 널려 있었지만 매물로 나온 집이 거의 없었고, 그마저도 너무 낡아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박씨의 호소이다.

박씨는 "군청에서 수리비를 지원해준다지만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애써 집을 수리해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하니,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6개월 동안 친척 집에서 머물다가, 여생을 보낼만 한 집을 찾지 못해 귀농을 포기했다. 귀농을 위해 구매한 농지를 완도에 고스란히 두고 왔다는 박씨는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며 "지자체가 널려있는 빈집을 활용해 귀농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귀농에 성공했을지도 모르겠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전남의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아직

귀농 희망자 해마다 늘지만 주거·일자리 문제로 정착 못해  
전남, 빈 집 활용 5% 못 미치고 일자리 정보도 얻기 힘들어

도 많다. 바로 '귀농·귀촌 희망자'다. 전남에서도 귀농·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주거와 일자리 문제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이들도 많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얘기이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에 따르면 농촌 적응에 실패해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귀촌 비율은 약 1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 체감한 역귀농의 비율은 50%를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현섭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역귀농인은 대부분 말 없이 떠나고, 한번 떠나면 실패 경험 탓에 관련 기관의 조사나 전화 응대 등을 피해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율은 훨씬 높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역귀농을 막고 전남을 찾는 귀농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정책을 펼친다면 지방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귀농·귀촌인 절반만 정착에 성공해도 전남의 인구소멸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역귀농으로 농촌을 떠난 이들은 '주거와 일자

리'에서 제대로 된 정보조차 얻기 힘들었다고 호소연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빈집 정보를 게시하고 있지만, 귀농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8일 현재 센터에 올라온 빈집 매물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394곳뿐이었다. 전남 시·군 1곳 당 20여 개의 매물만 올라와 있는 셈이지만, 매물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에는 약 2만 2000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에서 곡성으로 귀촌한 지 3년 차인 김수빈(여·31)씨는 주변 청년들이 역귀촌하는 이유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김씨는 "곡성에서 청년들이 살아보는 프로그램인 '청춘작당' 1기로 참가해 곡성에 귀촌했다"며 "하지만 최근 2기와 3기에 참여한 청년들중 귀촌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과 달리 지역에는 청년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데다, 직장 복지 개념도 부족해 청년들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는 "일자리 종류도 생산직·영업직 등 다양

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며 "귀촌했던 청년 대부분이 일할만한 직장이 없어 다시 도시로 떠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귀농귀촌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대상의 33%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지원자격이 까다롭다'(귀농인 24%, 귀촌인 18%)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귀농인 14%, 귀촌인 17%)가 뒤를 이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인의 40%는 '주택·일자리·농지 등 정보 제공'이라고 답변했다.

귀농귀촌인의 65% 이상은 관련 정보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얻는다고 답변했고, 농림축산식품부·귀농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제공 기능을 개선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같은 경우 전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에 게시하고 있다. 박람회,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귀농귀촌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회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